

지역 소식통

원광대병원, 감사·나눔
역량 강화 외부 특강 개최

원광대학교병원(이하 원광대)이 지난 20일 외래관 4층 대강당에서 감사 나눔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특강을 개최했다.

원광대병원은 이번 특강이 행복한 조직 문화를 위한 긍정적인 정서의 발견과 감사 나눔의 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가 목적이자라고 밝혔다.

감사 나눔 체험 특강을 통해 긍정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병원 만들기의 일환으로 교직원들에게까지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후영 병원장을 비롯 주요 보직 임용 경영진, 팀·실장 및 원내 친필코치네이터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특강에는 (사)행복나눔 125 오세천(남) 원장이 외부강사로 초청됐다.

이번 특강은 사막해저는 현대인들의 감성과 일터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장왕원기자

경기도 부천시 군산 방문
어린이 정책 벤치마킹

군산시 어린이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방문이 지속되고 있다. 21일 경기도 부천시 공무원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25명의 방문단이 21일 군산시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군산시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정책 벤치마킹과 상호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공영장 근대역 사바물터 등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한준수 군산 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도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해수청, 내항 수제선
호안 배후부지 정비공사 착공

군산시 소룡동 아외수영장 인근에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조성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소룡동 물놀이장 인근에 2만 8000㎡의 친수공간을 조성해 항만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 배후부지 정비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상징게이트, 바다분수, 조형물, 그늘벤치, 전망데크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오는 2018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내항 수제선 호안 배후부지 정비가 완료되면 서측으로 체육공원, 동측으로 아외수영장이 조성되어 인근 시민들의 발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근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확보 박차

정헌을 익산시장,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방문

정헌을 익산시장은 정부 부처가 조만간 2018년도 예산 편성에 돌입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21일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정헌을 익산시장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주요 사업과 현안 등 2018년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 사업에 대한 설명 활동을 벌였다.

각 부처 실·국·과장 등을 직접 만나 실무진과 핵심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인력과 장비 운영 S/W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해 국가예산 지원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예산지원을 호소했다.

정헌을 시장은 "불경기로 인한 소비 감소와 시와 구제역으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간 33년간의 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국회의원, 전라북도



공무원 모두가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 말했다.

한편, 정헌을 익산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 부처 예산 편성 준비기간에 익산시 현안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이해서

므로써 익산시의 현안 사업들이 국가예산 확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은 물론 부처 예산 담당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군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40억 원을 투입, 시 전역을 12개의 사업구역으로 나눠 의심목을 포함 방제대상목 14만 1000여 본을 제거할 예정이다.

특히 경관숲, 마을숲 등 우량수목 보호를 위해 실시했던 예방나무주사를 작년 12만 2000본에서 22만 8000본으로 확대 시행하고, 모두베기 피해목 매각을 통해 17억 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피해목의 상업적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익산시의 인접지역인 나포·서수·임피지구를 선단지로 설정하고 정읍국유림관리소와 공동방제를 추진해 외곽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각 및 파쇄에 따른 연기피해 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우하가 이전인 3월말까지 방제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사업임을 감안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80건 중 최종 4작품 선정...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시간여행축제 홍보' 우수상

시는 군산시간여행축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아이디어 공모 접수를 통해 접수된 80건 중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4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프로그램, 시설물, 홍보 아이디어, 리플렛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시는 1차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20건에 대해 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제안된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 창의성, 조화성, 효과성, 구체성 등의 평가기준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총 4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입상작은 우수상으로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하여 버려지고 잊힌 공간이 아닌 시간여행축제의 홍보의 수단과 도심경관 개선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시간여행축제 홍보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군산의 시간여행을 상징하는 조형물인 '군산 Time Gate' 조성 과 1930년대 독립운동가가 되어 독립의 희망메시지를 경연의 형태로 전달하는 말하는 근대로와 재민식의 소설 '탁류'와 레디메이드 인센에서 착안한 '2017, 달(脫) 레디메이드 인센'

등 세 작품이 선정됐다.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2017군산시간여행축제와 접목하여 관람객과 지역주민이 만들고 즐기는 한층 더 발전된 축제를 만드는 데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축제 아이디어 공모전에 전국적으로 많은 작품이 참여하여 기대 이상의 열기를 느꼈다"며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건설인력 관계자 간담회 개최

익산시는 21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정헌을 시장을 비롯한 건설인력 현장 소장 및 직업소개소 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인력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익산시 건설인력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 관련업체 및 직업소개소(건설인력)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건설인력 고용 촉진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정헌을 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건설업체 소장과 직업소개소 대표 간 소통의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직업소개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노동시장이 참체럼에 따라 지역 공사

업체는 익산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익산시의 건설 관련업체 및 직업소개소 관계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해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헌을 익산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일용직 근로자 채용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원방안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익산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직업소개소 대표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총 8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당 약 500여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대기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원광대, 내일부터 익산 인문도시지원사업 인문강좌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인문학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익산 인문도시지원사업의 2년차 인문강좌가 내일부터 진행된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은 한국연구재단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시민들에게 인문학 대중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원광대는 지난 2015년부터

익산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년 걸쳐 이루어지는 이 사업의 2년차 인문강좌는 '고도 익산 인문학II - 익산학의 가능성'을 주제로 매주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학으로서의 익산학에 대해 집중 조명한 예정이다.

강좌는 3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원광대 숭산기념관 2층 제1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원광대 인문학연구소(850, 715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31억원 투자 노후 파손 도로 정비

군산시가 31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및 파손 도로 정비에 나선다.

시는 우선 오는 내달 9월 개최되는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를 대비하여 마라톤 코스인 번영로 의 11개 구간 4.7km를 정비해 군산시를 찾아오는 선수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4월 이후에는 시내 일원 및 농촌지

역 주요 간선도로 50km 구간에 대해 도로정비 후 재포장 및 덧씌우기 등의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도로 이용자의 통행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산시는 효과적인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운전자들의 안전 사고 예방과 이용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A large promotional banner for Gunsan City. It featur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city with a lighthouse and a girl holding a pencil. The text includes '꿈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and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Logos for DreamHub GUNSAN and GUNSAN CITY are visible in the top right corner.